"1천만그루 나무심기 차질없다"

광주시, 내년에도 48억 투입 150만그루 심기로

광주시는 '예산과 전담인력 부족으로 1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졸속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시의회 예결특위의 지적'〈본보 12월2일자 2면〉과 관련, 내년에 국비 25억원 등 48억원을 투입해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등 '1천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또 전담인력도 시의회가 지적한 5명이 아니라 22명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특히 내년에는 ▲시가지 녹화▲공원 웰빙숲 조성▲도시 주변 산림녹화 등 3대 분야로 나눠 '녹색 문화수도'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가지 녹화를 위해 가로공간 하층부에 작은 나무를 식재해 생태공간을 확장하고, 횡단보도변 300곳에 느티·팽나무 등 향토수종을 심어 그늘 숲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매일유업 앞 등 7곳에 조각숲 조성사업, 16곳은 담장을 허물고 나무심기를 한다.

시는 또 공원 웰빙숲 조성을 위해 쌍암공원·호수생태원·발산공원에 느티·팽·이팝나무 등 큰 나무 500그루와 작은 나무 1만5천그루를 심는다.

시는 시 외곽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령 50~100년생 보호수 70그루에 대한 전수조사와 외과보호 수술, 숲 가꾸기(50ha), 등산로 정비(40㎞) 등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공공부문에서 60만 그루, 민간식수 90만 그루 등 모두 1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광주시 부지매입비 50% 안 내놓아

15개교 신설 중단 위기

2008~2009년 개교 안되면 2만여명 불편

광주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신설학교 부지매입 비용 50%를 내놓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08~2009년 개교할 예정인 15개교 설립사업이 부지 미확보로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수완·진월지구 등 택지개발지역 내 학생 수용을 위해 2008년~2009년 BTL(Build Transfer Lease, 민간투자유치사업)방식으로 모두 15개교를 설립·개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수용 예정 학생 수는 2만여 명이다. BTL방식인 만큼 시 교육청은 우선 부지를 확보한 뒤 민간사업자를 선정, 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 매입에 필요한 돈은 1천49억원. 지난 1995년 12월 제정공포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중 절반인 524억9천여만원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적기 개교를 위해서는 내년 초 부지 매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 공사에 14개월이 소요되는데, 개교 2개월 전까지 완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차례 광주시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안순일교육감이 광주시의회에서 '200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담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2005년까지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금 1천540억원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도부터 학교용지 매입비를 교부할 때 각 시·도교육청의 일반 회계 전입금 비율만큼 만 교부하기로 방침을 정해 광주시의 부지매입비 전입금이 지금처럼 전혀 없을 경우 교육부 지원도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광주지역 학교 신설은 광주시의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면서 "적기 개교를 하지 못할 경우 2만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에 다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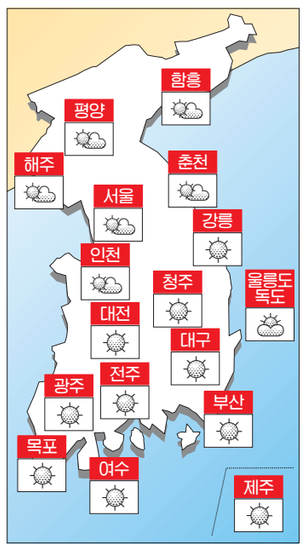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손 시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서해안 지방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12월 4일 (음 10월 14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5~9℃
목 포	구름조금	-2~7℃
여 수	구름조금	0~9℃
완 도	구름조금	-1~9℃
구 례	구름조금	-6~10℃
해 남	구름조금	-4~9℃
장 흥	구름조금	-5~9℃
고 흥	구름조금	-3~9℃
순 천	구름조금	-6~10℃
영 광	구름조금	-3~6℃
진 도	구름조금	-3~10℃
전 주	구름조금	-5~7℃
남 원	구름조금	-7~7℃
정 읍	구름조금	-5~6℃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0:46 13:37 썰물 06:13 19:00
여 수 밀물 08:28 20:32 썰물 01:51 14:35

▲해뜸 07:25 ▲해짐 17:20 ▲달뜸 16:21 ▲달짐 06: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 씨						
최저/최고	-3/11	2/12	6/13	7/12	4/10	3/9

광주 오늘 영하 5도…6일께 영상권 회복

전국적으로 한 차례 눈이 내린 뒤 매서운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북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해 영향을 미치면서 4일 아침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지역별 아침 기온은 광주 영하 5도, 구례·순천 영하 6도, 장흥·나주·장성·담양 영하 5도, 해남 영하 4도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에서 맴돌 것으로 보인다. 낮에도 6~10도 분포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불어 느끼는 체감 기온은 더욱 낮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이번 추위는 4일까지 이어지다가,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는 5일부터 서서히 풀려 6일쯤 영상권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일 오후부터 광주에 첫 눈이 내리기 시작, 자정까지 0.3㎝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어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0.1㎝가 더 내렸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5·18 보상업무 표류 장기화

심사위 한달넘게 구성안돼

5·18민주화운동 보상 업무가 관련여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한달 넘게 중단되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전원이 지난 10월 26일 사퇴한 뒤 지금껏 재구성하지 못해 제5차 보상업무가 중단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3일 광주·전남변호사회 등 6개 기관·단체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으나 3곳에서 4명만 추천하는데 그쳤다. 나머지 기관·단체에서는 신청자들의 과도한 요구 등에 부담이 적지 않다며 위원 추천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들은 "심사가 방해받지 않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서 지난달 2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재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보상심의에서 탈락한 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2명을 심사분과위원으로 위촉해 달라며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아 무산됐다.

시는 지난 2004년 제5차 보상심의에 나서 527명의 신청자 가운데 54명을 관련자로 인정하고 포기 등을 제외한 나머지 328명을 대상으로 재심을 진행 중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추위도 녹이는 임용시험 '열기' 2007학년도 광주지역 중등교사 임용시험이 3일 광주 광덕중·고등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날 시험에는 총지원자 2천622명 중 타지역에 응시하는 수험생 657명이 결시, 당초 경쟁률 15대 1보다 낮은 11.1대 1을 기록했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2007년 1월8일이며, 2차시험은 2007년 1월16~18일 실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통분담금 이달말까지 찾아가세요"

광주·전남 74만명 46억 미환급땐 국고 환수

"교통안전분담금 찾아가세요"

운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통안전분담금 수십억원의 지급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3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남지부(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월1일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선납 받은 분담금 중 일부를 환급해주고 있지만 광주·전남의 환급률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환급받지 않은 사람은 74만여명이며, 금액은 46억원. 대상자는 2001년 말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자와 자가용차량 소유자이며, 개인별 환급액은 ▲운전면허증 소유자 50~5천400원 ▲자가용차량 소유자 400~1만9천200원이다. 하지만 12월31일이 지나면 미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된다.

환급 신청은 ▲ARS 1588-6117 ▲공단 전남지부 530-6114 ▲인터넷 홈페이지(bundam.rtsa.or.kr)로 하면 된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조선이공대 교수·학생 "원칙없는 학장 임명" 반발

조선이공대학 구성원들이 법인측의 신임 학장 임명에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조선이공대학에 따르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지난 1일 제8대 신임 학장에 김형곤(56·전기과) 교수를 임명했다.

앞서 조선이공대학은 지난 10월 86명의 교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학장 선거를 실시, 49표를 얻은 조모(55·하이테크 캐드캠과) 교수를 학장 후보로 선출했다.

하지만 법인 이사회는 대학 측이 법인에서 정한 학장 후보자 자격기준을 무시하고 선거를 강행했다며 선거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 이사회는 또 직접 조선이공대 학장을 뽑기로 하고 후보 등록한 김 교수와 조 교수를 상대로 지난달 29일 심사를 벌여 김 교수를 신임 학장으로 선정했다.

조선이공대학 구성원들은 법인 측의 학장 임명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하고 4일 교수협의회 총회를 열어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특목고 설립 교육부 협의 거쳐야"

外高없는 광주는 적용 안될 듯

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설립을 인가할 때 반드시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광주의 경우 "외국어고가 없는 지역의 경우 외고 설립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과열 입시경쟁을 낳고 있는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국제중 등 자율중학교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열 입시경쟁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이들 학교를 지정 고시할 때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토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지역 첫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은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유일하게 설립제안서를 접수한 학교법인 보문학숙이 현재 근무 중인 교사를 모두 공립교사로 전환시켜 주고 대신 53명의 교사를 특채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시교육청 역시 교육감이 바뀌는 와중에서 이렇다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